

회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19년 1월 후원미사는 21일, 2019년 2월 후원미사는 18일, 2019년 3월 후원미사는 18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8년 1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8,164,070	전월이월금	5,000
지 로	2,687,190	우리은행	6,517,000
국민은행	4,324,000	하나은행	1,056,000
조흥은행	95,000	신한은행	1,110,000
외환은행	422,500	제일은행	145,000
농 협	1,285,000	기업은행	487,380
우 체 국	3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5,334,070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8,159,070	잔액(이월금)	5,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8. 12 / 제30호

펴낸날 2018. 12. 17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겨리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화가 후원자님과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갑작스런 한겨울의 한파가 두터운 옷을 뚫고 온몸을 차갑게 만들며 심장을 더욱 움추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추위를 이겨내려고 가슴을 펴고 깊고 긴 숨을 들이 마시며 정신을 맑게 하고 살려는 의지를 불 태워 봅니다.

지난 9월에 저는 국내에 있는 111곳의 성지를 순례하였습니다. 성지순례객자를 가지고 서울 가톨릭신학교를 시작으로 마지막 명동대성당까지 4,200Km의 여정이었습니다. 순교터와 순교자무덤, 순례지정성당과 성인 생가터 등을 순례하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금 잡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성지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어느 성지는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외지고 초라한 곳도 있었습니다. 많은 성지들이 성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를 순례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목상을 할 수 있는 시간들 안에서 저의 삶을 반성하고 결심을 세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례의 첫 번째는 만남이었습니다. 성지에서 만나는 성인과 순교자들의 숨결과 신앙심, 하느님 아버지의 기운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지향을 가지고 순례하시는 순례객을 만나면서 홀로 순례를 하지만 혼자자 아닌 함께 하는 여정임을 알았습니다. 만남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순례의 두 번째는 환대였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이주관련 신부님들과 함께 사목을 하였기에 환대를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정의 중간 중간에 쉴 수 있었고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머무를 자리가 없을 때에는 적당한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추자도에서 저녁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나 연락을 하면서 함께 있지는 않지만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의 세 번째는 드러냄이었습니다. 순례하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것은 개발이었습니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난 나를 그대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내 모습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를 하면서 저는 다시금 우리가 이주민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나고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아갑니다. 이 안에 분명 하느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혼자자 아닌 서로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아닌 당신 앞에서 자비를 청하는 이들을 돌보아주셨듯이 우리 각자 앞에 있는 이주민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후원자님과 가정에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화가 머무르시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12월 대림시기 사회교리주간을 보내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공동체 소식

사랑의 집 소식* - 활동



입소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희망을 갖고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에니어그램과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의 나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붙이는 등의 작업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원회 소식 I 사회사목국 활동*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가난하고 고통받으며 소외받는 이들에게 교회공동체가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을 총괄하고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본당 사회사목 분과장과 위원을 위한 사회사목 실천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사목 관련 단체 활동 신자들에게 각 위원회를 소개하였으며 이주사목위원회도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들을 공유하며 어떻게 함께 이웃으로 살아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 방법에 대해 본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더 고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무 수확 관찰



▲ 무 김치 담그는 영아들

▲ 이상한 나라 앨리스
교통안전뮤지컬 관람

공지사항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송 안내 소식*

201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입금하신 기부금을 확인하여 2019년 1월 초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2018년 안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이주사목위원회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문의:02-924-9970/1).

위원회 소식 II 이주·난민 관련 세미나*



(좌)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종교인의 관점으로 보는 난민) / 2018. 12. 4

(우) "사회고리로 비추어 본 한국사회 "이민과 난민 : 평화를 찾는 사람들" / 2018. 12. 9.

세미나 내용들을 간단히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사목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17년 한 해 동안 총 9,942건의 난민 신청이 전국에서 접수되었음.
-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21명임.
- 2017년은 재정착난민을 제외한 심사 종료자 6,015명 중 단 91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음.
-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총 32,733건임.
-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92명임.
- 2017년 난민인정률은 1.51%임.
- 2017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인도적체류자는 총 1,474명임.

제주도 예멘 난민문제에서 보듯이, 난민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으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과 악의적인 루머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소모적 논쟁들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난민들에 관한 이차적 문제들이 또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보여지는 난민에 대한 반응 즉, 혐오와 인종차별의 현상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받아들여지는 상황들은 많은 부분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정신철 주교는 2018년 이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게 환대, 보호, 연대의 손길을 청하며, 한국 천주교회의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특히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서 보여준 제주교구의 모습은 모범적이었다. 제주교구 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2018년 교황주일 사목서한에서 난민에 대한 배척, 외면은 인간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라며 포용과 자비를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제주 이주사목센터(나오미)는 임신부나 자녀가 있는 난민 가정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신자들이 숙소와 생필품 그리고 취업 알선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초기에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지원으로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선을 즉 실천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다. 난민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실천을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되어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사랑하는 이주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여러분!

베풀어 주신 따뜻한 사랑에 하느님께서 더 크신 은총으로 되돌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8년 한 해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